

오주현 작가 도자인형전 '조선 500년의 색을 빛다'

내달 25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한국이 낳은 도자 인형 작가 오주현 작가가 우리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을 통해 도자인형의 섬세함을 선보인다. 조선시대 복식과 궁중행렬, 궁중악의 연주를 하는 모습을 담은 도자인형에서 전통의 미를 느껴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다음달 25일까지 오주현 작가의 조선500년의 라이프스타일 도자인형전 '조선 500년의 색을 빛다' 전시를 개최한다.



대례식

조선시대 궁중행렬·궁중악...전통 美 느낀다

소지·안료·재료 등 혼합기술 독보적 노하우
섬세한 도자인형 통해 옛 생활 문화 살펴봐

오주현은 우리나라가 배출한 도자 인형작가로 도자 인형이라는 특별한 장르에서 활동하며, 조선 시대의 생활상을 주제로 아름답고 고유한 우리 전통의 미를 알리고자 창작에 매진하고 있다.

작가의 작품세계를 널리 알리고자 대구신세계갤러리에 이어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개최되는 이번 순회전은 '대례식', '궁중 악' 등 조선 시대 궁궐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들과 궁궐 밖 사람들의 일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돼 있어 섬세한 도자인형을 통해 당대의 생활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주현의 도자 인형은 조형, 색, 채색 등의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1천250℃ 이상의 고온에서도 작품이 무너지거나 갈라지지 않는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작가만의 특별한 공정 때문이다.

소지(壽)와 안료, 재료 등의 혼합 기술에도 독보적인 노하우를 적용해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오방색을 비롯해 작품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색상을 선행하면

서도 깊이 있게 나타내기 위해 실험을 기울인다.

일반적인 도자 인형과는 달리 물도를 사용하지 않고 작가가 직접 조형해 작품을 완성하기 때문에, 모든 작품이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유니크한 작품이다.

전시는 크게 '궁'과 '그 삶'이라는 두 주제로 구성됐다. '궁' 파트에서는 대례식, 궁중악 등과 같이 궁궐 안에서 이뤄졌던 행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왕과 왕비의 위엄 있는 자태와 황후의 황원삼, 왕가의 여인들, 문관과 무관, 궁녀와 내시 등 30여 점의 도자 인형으로 조선 궁중의 산책 장면을 구성했다.

왕과 왕비가 앞장 서서 행렬하는 대례식의 모습은 마치 실제로 궁궐 안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정교하다. 작품 '궁중 악'은 이번 순회전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작품으로 20여 점의 악기와 연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악기와 연주자의 모습이 정교하게 표현돼 마치 음악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전하는 작품이다.

'그 삶' 파트에는 궁궐 밖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인형이 전시돼 있다. 선비, 어머니, 어린 아이 등 다양한 인물로 구성돼 있는 이 파트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옛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를 담고 있어, 관람객들로 하여금 마음 속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조선 시대 여성을 표현한 도자인형 연작은, 고단한 삶을 극복해야 했던 지난 날의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게 한다. 갤러리 벽면에 설치된 200여 점의 도자 저고리는 한복의 색과 아름다움을 한 눈에 담아볼 수 있는 특별한 작품이다. 오방색과 전통문양을 바탕으로 작가가 새롭게 디자인한 한복 저고리로 가득 찬 벽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 잡는다. 우리 한복의 다양한 색과 멋을 담고 싶다면, 이 곳에서 함께 사진을 찍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신세계갤러리 측은 "우리나라에서 도자 인형은 아직 생소할 수 있지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컨텐츠로 성장하기 충분하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의 역사와 인물, 추억이 담겨 있는 도자 인형 그 고유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이기자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추천 18인

(10)릴리안 린

소용돌이 형상의 추상화...운동과 빛의 시각화

릴리안 린은 1939년 뉴욕에서 러시아계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파리에서 시인이자 연금술사 엘리-샤를 플라망을 비롯한 초현실주의 모임의 회원들을 만나고 밀라레파의 불교시와 리처드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에 빠져들면서, 1950년대 후반에 미술계에 입문한다.

이후 그의 작업은 실존을 던지는 시와 시각적으로 추상화한 운동과 빛으로 정의돼 왔다. 이는 구체시와 키네틱 조각을 결합한 작품을 개척하고 산업용 고분자 플라스틱, 퍼스펙스, 아세트산을 실험하면서 탐구한 결과이다.

여성 신들의 원형에 관심을 가졌던 린은 1980년대 초부터 그리스와 힌두 신화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제 이전의 넘프 여신들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이런 도상들을 참조해 산업용 금속 가공술, 프리즘, 전자 시퀀스 등으로 기념비적 로보틱 조각을 만들어냄으로써 시적이고 위협적인 존재감을 띤 성스러운 과학소설적 조각상을 소환해냈다.

이 시기에 만든 '전기 신부'(1989)는 닥탈로 감싼 가공 운모와 수제 유리로 만든 대형 조각이다. 100볼트 전류가 연결



릴리안 린작 '춤의 춤'

된 금속 철창에 갇힌 이 신부는, 1980년대 밴드 크레이지 보이즈와 협업한 것으로 유명한 일본의 가수 시라이 다카코가 속삭였던 시를 읊조린다.

30년 후의 키네틱 조각 '중력의 춤'(2019)도 기존의 탐구를 이어 나간다. 이 작품에서 소용돌이치는 형상은 최고조로 회전하는 치마의 움직임임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 속의 공전은 물질과 정신을 움직이는 우주의 힘을 다룬다. 또한, 작가의 초기 키네틱 작품에 영감을 준 블랙홀의 중력, 수피파 고행자들의 무아지경의 회전, 불교의 마니차를 모두 상기시킨다.

/김다이기자

광주창작희곡공모전 대상에 김이율씨

우수상 민혜정 '시작' 선정

제3회 광주창작희곡 공모전에 김이율(서울)씨의 '버스 손잡이' 작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은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의 지원을 받아 개최한 광주 창작희곡 공모전에서 대상에 김이율(서울)씨의 '버스 손잡이', 우수상에 민혜정(해남)씨의 '시작'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이번 창작희곡 공모전은 올해 11월 열리는 광주시민연극제를 앞두고 광주지역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광주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장르 제한 없는 연극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응모 작품은 예심을 거쳐 총 5편을 작가에 대한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은 채 2명의 심사위원에게 넘겨졌다.

2명의 본선 심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각각 심사를 한 후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으나, 각각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대상과 우수상에 대한 평가 결과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본선에 올라온 심사 작품은 '염병', '버스 손잡이', '시작', '조선인 거리, 광주극장', '이강하' 등으로 결선작품 대부분은 광주의 역사, 인물, 그리고 아픈 5·18을 소재로 다뤘다.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광주는 예술가



김이율

민혜정

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는 도시다. 문화예술 여러 장르에 끊임없이 살아 꿈틀거리는 자극과 감동을 안겨주는 도시다"며 "광주서구문화원 희곡모집에 응모한 작품들을 읽으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국극작가협회 선욱현 이사장은 '버스 손잡이'에 대한 심사평으로 "80년 광주의 비극을 대를 이은 복수와 잔인한 인연의 고리를 풀어낸 복잡한 대응 관계가 작품에서 무리 없이 그려졌다"면서 "그러나 너무 작위적이고 전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한계도 있어 조금만 더 자연스럽고 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 훨씬 좋은 드라마가 될 것이다"고 평했다.

또 우수상인 민혜정의 '시작'에 대해서는 "말바우시장 할머니들의 한글배우기를 통해 소소하지만 일상 속 감동을 자아냈으며 저자 거리에서 평생을 보낸 인정 넘치는 광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고 밝혔다.

/김다이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